

세계기도정보

[부탄] 겔레푸 시티 개발로 인해 빈곤 계층 증가 우려돼
 [아이티] "주술 때문에 아들 아파"... 갱단, 부두교 신자 184명 학살"
 [필리핀] 해외 근로자를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해지고 있어
 [시리아] 내전 13년만에 반군에 수도함락... '철권통치' 알아사드 도피
 [콩고민주공화국] 유사 괴질 사망 71명... '호흡기 질환 추정'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내년부터 성경 기반 교육과정 도입
 [시리아] 반군 약진으로 다시 끊는 지정학 용광로가 된 시리아
 [호주] '전체주의적' 비판받은 '의사소통법' 개정안 철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 아프간 언론인 300여명 체포·고문·협박
 [쿠바] 기독교 지도자들, 정부의 박해 규탄 성명 발표
 [아시아] 스리랑카·태국·인니·말레이 등 아시아 폭우로 인명피해 속출
 [핀란드] 젊은 여성들 기독교와 멀어지고 무신론 증가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2024. 12 멕시코에서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요...

11월 29일 금요일, 지난번에 보지 못한 새로운 학생이 수업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자매님,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저는 이곳으로부터 정글 안으로 칠 일 정도 들어간 곳에서 사역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브라질 국경 아마존 지역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한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께서 강의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사역자가 되게 되었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글을 알지 못하던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오랜 병으로부터 그녀를 치료하시고, 매일 그녀에게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 이제 그녀는 그녀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찾아가 치유 사역을 하고 다시 정글로 돌아온다고 한다. 하나님은 정글 속에서 한 여인을 부르시고 치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곳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 부족이 있어 지금 그들과 몇 년에 걸쳐 접촉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한다. 그녀가 나를 뵈기 바라보며 말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상해주라고" 그리고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1999년 말 교통사고 이후 늘 나와 함께한 통증이 사라졌다. 작년 말 발목이 접질렸지만, 바쁜 나머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이후 계속 붕대를 감고 있었던 발목도 회복이 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회복되지 않아도, 저는 언제나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해야 할 일들이 이리도 많은데,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들어갈 젊은 사역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곧 저는 은퇴해야 하는데 아버지, 저의 치유가 아닌 젊은 주의 일꾼들을 선교지로 보내어 주소서."

서로 다른 현지 교회...

11월 21일 목요일, 어제 이른 아침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출발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드디어 오늘 페루의 아야쿠초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이곳 남반구는 여름이지만, 높은 고도로 인해 체감되는 날씨는 늦가을 같다. 도착하자마자 아야쿠초를 중심으로 두 지역에서 장로교 노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마치 회색 지대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복음은 종이 아닌 아들을 만들건만, 율법과 교리 그리고 차별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현지 리더들을 본다. 이들 안에 기쁨이 없다. 복음이 가져다준 그리스도의 자유 대신 교리에 매여 갈라지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며 차별한다. 이 짧은 며칠의 만남 속에 이런 현지 리더들의 모습이 나를 너무 안타깝게 한다.

11월 25일 월요일, 도시를 떠나 아마존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 4,200미터 안데스 산맥을 넘어야 한다. 우리는 그곳에 위치한 팜보라는 산악 마을에 도착해 지역 노회 모임을 진행했다.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모임에 교인들도 참여했다. 대부분 부족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통역을 세웠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아직 글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일이다. 몸은 어른이지만 초등 학교의 지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매일 모임이 마칠 때면, 어르신들이 나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한다. 스페인어로 더듬거리며 나에게 말하는 어르신들, 어떤 어르신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부족어로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시며 부끄러워하시며 이야기를 나에게 계속한다. 비록 현대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배우지 못했지만, 아야쿠초 도시와 달리 모든 것이 너무 순수하다. 이들이 준비한 음식을 같이 먹으며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아직도 이런 순수한 영혼이 이 땅 교회에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1월 29일 금요일, 고산 지대 사역을 마치고 아마존 정글이 시작되는 마지막 마을 삐차리에 도착했다. 이곳을 벗어나면 모든 곳이 정글이다. 마약 문제로 지역의 입출입은 군대가 통제한다. 이제 이곳에서 보름 머물며 인근 아마존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레위기와 로마서를 강의하게 된다. 그리고 저녁이면, 또 지역 교회를 방문해 설교를 한다. 이 마을에서 30분만 벗어나면 모든 곳이 정글이다. 정글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생활은 단조롭다. 해가 지고 저녁 7시 반만 되면 모두가 잠을 자고, 새벽 4시쯤이면 또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도 어느덧 이 시간대가 익숙해진다. 이곳도 몸은 어른이지만, 평균 지력은 초등학교의 지력을 가지고 있는 구전 사회다. 비록 글을 배우지 못하고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지만, 이곳 교회들은 힘써 금식하며 기도한다.

12월 11일 주일, 전날 지역 전체 노회를 마치고 한 연세 많은 현지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나를 초대했다. 험한 길을 뚫고 방문한 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성령을 체험하고 있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부족어로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도시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성령의 역사와 기쁨이 충만하다. 글을 알지 못하더라도 더 성령으로 충만하길 나는 기도한다.

12월 기도제목:

1. 아들을 낳는 복음을 이곳 페루에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2. 비록 페루 지방 성도들이 글을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3. 중남미에 필요한 하나님의 젊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길.
4. 내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치아파스 및 메리다에서 진행되는 교사 양육 세미나가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